

‘안전교육도 모바일에서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사회적 거리 두기, 디지털화는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교육방식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 이하 공단)은 오프라인 집합 교육으로 운영하던 과정들을 온라인 방식으로 강화하는 한편, 모바일 교육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보건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

공단은 경영자 및 중간관리층 교육과 노동자층, 그리고 외국인 등 산재 취약계층 교육으로 구분해 연간 약 80만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지난해는 연간 약 70만명이 집합 교육(84%)을 받았으며, 10만명 이상(16%)이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다. 집합 교육은 공단의 27개 지역별 일선 기관과 공단 교육원에서 시행했다.

공단은 기존 대면 교육을 비대면 교육과정으로 확대·개편하고, 화상교육과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교육시스템으로 온라인 교육 이수율의 주목할 만한 증가와 함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 주로 대면으로 실시하던 30개 교육과정 중 14개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했으며, 교육용 버스를 이용해 이동 안전교육 등을 하고, 감염 위험이 높고 교육 실효성이 낮은 6개 과정은 폐지했다. 나머지 10개 과정은 사업장 강사지원 등 제한적인 교육방식으로 했다.

‘10분 안전교육’은 시간·장소 제한 없이 모바일을 활용해 업종별로 교육, 산업 현장에 높은 활용도를 보인다. ‘위기탈출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에 탑재된 이 교육은 산업 현장 활용 횟수가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9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배 이상 활용된 134만 여회의 이용 횟수를 보였다. 공단은 ‘10분 안전교육’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400여개의 교육 콘텐츠를 추가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교육은 8개 신규 과정을 개설한다는 목표로 콘텐츠와 시스템 점검 등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고위험작업 5대 업종인 물류 택배 및 건물관리, 통신 등 고공 작업, 단체급식 등에 대한 업종별 사고 사망 예방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3t 미만 전동식 지게차 운전자격 과정인 지게차 조종 전문교육을 이력화함으로써 온라인 안전보건교육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단 안전보건교육 담당자는 “현장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화학사고 예방 교육 과정 등 특성화 과정을 새롭게 개설할 예정”이라며 “위기 탈출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 등 모바일을 활용한 10분 안전교육 콘텐츠 등도 추가 업데이트해 산업 현장의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